

민주노총 전국 16개 지역에서 대회 열어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반노동정책 폐기, 사회대개혁실현” 외쳐

- 21일 13:30 서울고용노동청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투쟁 고삐 늦출 수 없다. 내란범 세력 몰아낸 자리에 새로운 세상을 일구자, 노동개혁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자”

민주노총이 21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대회를 개최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 하고 “윤석열 반노동정책 폐기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 고 외쳤다.

13:30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일당에 의한 내란은 종결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는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한다”면서 “내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윤석열을 체포하고 즉각 구속시키자” 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우리 민주노총 간부 조합원들은 불안해하는 가족들의 눈빛을 뒤로 하고 국회로 달려왔고, 주저하지 않고 총파업을 선언하고 용산으로 관저로 진격했다” 라며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거리로 나오는 지금,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투쟁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저들을 몰아낸 자리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일구어 가자.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노동 탄압을 노동 개혁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라며 “노동자 민중이 웃는 세상을, 우리가 주인 되는 세상을 힘차게 쟁취하자” 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재외동포청지회 정유진 지회장은 “우리는 90년대생,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후 태어난 세대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목소리로 거리로 나와 '투쟁'을 외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면서 “우리는 단지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배영진 지부장은 “윤석열은 MG손해보험을 메리츠화재라는 자본의 손아귀에 넘기려 밀실야합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700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가족의 일상을 사수하기 위해 우리 노동자들은 금융당국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 중”이라며 “한파의 추위지만 노동·가족·노동자의 가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우리는 열린 광장에서 소통 공감하고 연대를 이뤘다. 윤석열 파면과 더불어 사회대개혁, 새로운 세상을 열자”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산별교섭과 적용 제도화, 노동개혁을 쟁취하자. 국가책임 동네방네 공공성이 보장되는 세상, 부자증세로 민중복지 세상! 성평등, 자주평화통일 세상으로 체제전환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종각을 거쳐 경복궁까지 행진했으며, 17시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프로그램비상행동이 개최하는 시민대행진에 참가했다.

[붙임]

1. 대회 개요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3. 공공운수노조 재외동포청지회 정유진 지회장 발언문
4.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배영진 지부장 발언문
5.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김진억 본부장 발언문
6. 전국 대회 개최 현황

[첨부] 대회 사진 파일

[붙임] 대회 개요

○ 개요

- 제목 :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윤석열 반노동정책 폐기, 사회대개혁실현 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24년 12월 21일(토) 13시30분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 행진 : 서울고용노동청(삼일로) → 동십자각 경복궁 교차로(동십자각)
- 대회 종료 후 : 15:00 범국민대행진 참석

시간	순서	내용	장소
13:30	민중의례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포토타임	서울고용노동청
13:40	대회사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3:45	투쟁 발언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내란 처벌하라! - 공공운수노조 재외동포청지회 정유진 지회장	
	투쟁 발언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하라! -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배영진 지부장	
13:55	문화 공연	- 민중가수 박준	
14:05	폐회, 행진	행진	서울고용노동청 →안국역
14:25	투쟁 발언	윤석열을 파면하고 사회대개혁·노동개혁 실현하자!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김진익 본부장	안국역
14:30	행진	대오 정비 후, 이동	안국역→동십자각
15:00	본대회	비상행동 주최, 범국민대행진 참석	동십자각

13:30 민주노총 대회 후 행진 코스

고용노동청 > 역방향행진 > 종각역 > 안국역 > 동십자각 부근



[붙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우리 민주노총 간부 조합원들은 불안해하는 가족들의 눈빛을 뒤로 하고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총파업을 선언하고 투쟁했습니다. 막힌 길을 열었고, 윤석열에게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대신하여 용산으로 관저로 진격하는 투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민주노총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박수 보내고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동지들이 함께 노력하고 투쟁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직 윤석열 일당에 의한 내란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는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방조하고 동참했던 국무위원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반성하고 처벌을 피하고자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로 향하던 농민들의 전봉준 투쟁가는 경찰을 위해서 트랙터 유리창이 깨지고 내동맥이 쳐졌습니다. 국회를 가로막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던 경찰이 이제는 계속 노동자, 농민의 분노를 막아서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들에 의한 폭동이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종지부를 찍기 위한 첫걸음은 윤석열을 체포하고 즉각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을 방조했던 자들을 낱알이 색출해서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을 몰아낸 자리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일구어 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던 노동 탄압을 노동 개혁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일 때 자리에 앉아 뻗뻗하게 고개를 들고 있던 자가 노동부 장관인 김문수였습니다. 그에 의해서 자행된 노동개혁, 노동 탄압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빼앗긴 허물 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를 되찾아야 합니다. 빼앗긴 건설 노동자들의 양해동 열사의 명예와 일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타임오프로 회계 공사로 노동조합을 혐오 집단으로 만들었던 자들에게 노동조합은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계엄의 근거로 만들고자 했던 남북의 분단 문제도, 재벌 대기업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도, 거대 양당이 권력을 나누고 주고받는 낡은 정치 체제도 모두 바꾸어 냅시다.

권력을 시민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통해 민주주의를 절대로 부수거나 어렵 훼손할 수 없는 공고한 것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것이 노동조합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이고, 그것이 노동자 민중이 진정으로 주인 되는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힘찬 투쟁을 더욱더 거세게 만들어 가야 할 시점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역할

이 더더욱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연말 연초 우리는 한 해 사업을 정돈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시기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것과 함께 거리에서의 투쟁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시점입니다.

민주노총 답게 싸워 갑시다. 어려울 때 같이 바라는 민주노총답게 서민들이 노동자들이 고통받을 때 앞장섰던 민주노총답게 지금의 시기를 돌파해 냅시다. 그래서 노동자 민중이 웃는 세상을, 우리가 주인 되는 세상을 힘차게 쟁취합시다.

[붙임] 공공운수노조 재외동포청지회 정유진 지회장

대한민국의 봄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국민 여러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하늘을 어지럽히고,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종북과 반국가세력 척결',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전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제한하며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발효시켰습니다.

이 순간, 우리 사회는 마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에 다시 맞닥뜨린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김주열, 박종철, 이한열 열사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룩해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그 역사적 참사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국민들은 밖으로 나와 퇴진을 외쳤고,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은 종료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단번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정부기관 재외동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실무관입니다. 작년에 재외동포청이 개청되었으나, 임금체계와 인사체계의 부재 속에서 우리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2024년 임금 동결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가의 근본적인 기능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임금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차례의 교섭에서 사측은 일관되게 '불가능 하다'는 답변만을 반복했고, 12월 10일의 조정절차에서도 임금과 관련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투쟁만이 남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저와 함께 일하는 21명의 젊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1년이 넘어도 우리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급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이렇게 대가 없이 대우받는다는 것에,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월급을 반납하고,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와 '투쟁'을 외치며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바람에 묻히지 않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추위에 부서지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돌아오는 정당한 대우입니다.

우리는 90년대생,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후 태어난 세대입니다. '투쟁'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에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목소리로 거리로 나와 '투쟁'을 외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유는, 단지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결국 대한민국의 내일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우리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결코 헛되지 않도록, 단결하여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김구 선생님의 독립을 향한 싸움, 전태일 열사의 노동자 권리를 향한 외침, 그리고 이한열 열사의 민주화를 향한 희생을 이어받아 싸웁니다.

우리의 이번 파업은 단결을 통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일 때, 이 불합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 싸울 것입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연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투쟁!!

[붙임] 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배영진 지부장

윤석열은 내란범입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우리나라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잠시 대통령으로 있던 그 짧은 시절 노동약자 보다는 자본과 권력의 추종자, 노동3권 보다는 자기주권, 노동자 보다는 김건희를 감싸며 보호하고 위하던 희대의 팔불출이었습니다.

급기야는 화물노조를 권력과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건설노조를 건폭몰이하여 노동자의 핍박을 즐기고 위축을 조롱하는 비아냥의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건폭몰이의 막다른 골목 끝까지 몰아붙여 고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방조하고 조롱하는 인간 이하의 모습조차 보여 왔습니다.

우리 노동자는 끊임 없이 싸워왔고 외쳐왔지만 단 한번도 스스로 쓰러지거나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은 노동자의 참다운 가치입니다. 노동자의 참다운 가치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노동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그 가치실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귀한 행위자입니다.

과거의 역사에 항상 책임은 노동자가, 권리와 이익과 수익은 자본가 경영자가 독차지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의 제공도 책임져야 하고 경영의 최종 결과도 책임져야 하고 왜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감내하고 책임만 저야 하는 것입니까?

경영의 부실, 자본의 욕심, 권력의 실수마저도 온갖 노동자의 책임과 노동의 가치를 깎아 내리며 끈임없는 노동 말살, 노동자 종속의 목적을 위한 윤석열의 칼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정부는 모든 노동의 행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 하고 조작해 내려하며 노동이 수단이 되는 제어가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엠지손해보험은 손해보험업 77년의 역사를 지켜이 지켜온 회사입니다. 700명의 임직원과 2천이 넘는 임직원 가족까지 모두의 생계, 삶, 미래가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노동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금융당국을 활용하여 메리츠화재라는 자본의 손아귀에 먹기 좋게 한쌈을 싸서 털어 넣으려 시키면 욕심의 밀실야합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반노동 기업, 자본의 노예, 노동자와 노동력의 수단화를 거리낌 없이 행사하는 손해보험 시장의 이단아 같은 퇴출대상의 기업입니다. 그러한 기업에 정부의 정책과 수직적 충성의 부합된 굴레에서 엠지손해보험 700노동자의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가족의 일상을 사수하기 위해 우리 노동자들은 금융당국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한파의 추위와 그들의 서늘함, 그리고 냉소와 조롱의 시선이 난무하지만 노동의 가치, 가족의 가치, 노동자의 가치를 사수하기 위한 험난한 길을 멈춤 없이 가겠습니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세상을 위해 120만 민주노총 동지들께서도 다 함께 메리츠화재 보험 불매운동도 함께 해주시어 든든한 동지애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지지 않는 투쟁, 지치지 않는 싸움, 물러서지 않는 저항으로 반드시 이 투쟁을 승리하는 노동자로 우뚝 서서 승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붙임]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김진익 본부장

내란수와 윤석열과 부역자들의 범죄행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랜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이었습니다. 성공했다면 80년 광주민중항쟁, 학살이 바로 이곳 서울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희생자가 되고 누군가는 체포,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끔찍합니다. 지금도 아찔합니다. 분노가. 분노가 치솟습니다.

내란수와 윤석열, 지금 당장 체포 구속해야 합니다. 헌재가 빠르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파면되어야 합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 일당들은 여전히 내란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왜곡하고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됩니다.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됩니다. 빠르게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내란동조, 공동정범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회복 불가능하게 눌러야 합니다.

시민들이 친위쿠데타 내란을 막아냈습니다. 10대 20대 청년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30,40대 50,60대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탄핵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열린 광장에서 소통 공감하고 연대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윤석열 파면과 더불어 사회대개혁,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시다. 불평등 타파보다 평등한 세상,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산별교섭과 적용 제도화, 노동개혁을 쟁취합시다. 국가책임 동네방네 공공성이 보장되는 세상, 부자증세로 민중복지 세상! 성평등, 자주평화통일 세상으로 체제전환을 이루어냅시다. 한마디로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민주노총이 선봉입니다. 노동이 시민, 청년, 여성, 장애인, 소수자들과 어우러지며 함께 윤석열 파면, 국힘 해체, 사회대개혁, 노동개혁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붙임] 전국 대회 개최 현황

지역 본부	대회명	시간 및 장소	주최 / 대회 구호
서울지역본부	시민대회	15시 광화문 동십자각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인천지역본부			윤석열즉각체포구속! 현재판결촉구! 사회대개혁쟁취!
경기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9차 충북도민시국대회	16시 충북도청 앞	충북비상시국회의 윤석열즉각퇴진구속수사 내란동조국민의힘해체 민주당평등사회대전환!
대전지역본부	17차 대전 시민대회	16시 은하수 네거리	윤석열퇴진 대전운동본부 윤석열구속 파면! 국민의힘 해체! 사회대개혁!
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시민행동	15시 야우리(천안고속버스터미널)	윤석열퇴진 충남운동본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석열즉각파면구속! 내란동조국민의힘해체! 사회대개혁실현!
전북지역본부	전북도민대회	16시 전주 객사 앞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체!
광주지역본부	광주시민 총궐기대회	16시 5.18민주광장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전남지역본부	여수시민 시국대회	17시 흥국체육관 옆 도로,	여수시민비상행동 윤석열 즉각 파면 처벌
	순천시민 촛불광장	16시 연향동 국민은행 사거리	윤석열퇴진 순천시민비상행동
대구지역본부	11차 대구시국대회	17시 CGV 대구 한일 앞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 윤석열 퇴진
경북지역본부	포항시민비상행동	16시 16시 영일대 장미원 앞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시민승리! 촛불승리! 탄핵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안동시국대회	17시 안동문화의거리,	안동시국행동 윤석열파면 촉구
부산지역본부	부산시민대회	16시 서면 동천로(놀이마루 인근)	윤퇴진 부산행동 체포구속파면, 내란범죄집단엄벌, 국민의힘해체 사회대개혁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대회	16시 롯데백화점 광장	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 윤석열즉각체포파면/내란동조국힘해체/사회대개혁(민주주의완성)
경남지역본부	경남도민대회·시민대회	17시 창원시청 광장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 내란수괴 윤석열체포, 내란동조 국힘당해체
강원지역본부	강원도민대회	15시 강릉(권성동 국회의원사무실)	윤석열정권퇴진 강원운동본부 윤석열즉각파면처벌! 내란공범국민의힘해체! 사회대개혁실현
제주지역본부	제주도민대회	19시 제주시청	윤석열정권퇴진 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